

# 전통 염색복에 표현된 동서양의 색채의미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강사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  
과 교수  
\*\*\* 서경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 교수

신정숙\* · 이상은\*\* · 정혜정\*\*\*

## 목 차

### I. 서론

#### II. 전통복색에 사용한 천연염료

#### III. 동양과 서양의 사상체계

#### IV. 동서양의 색채 의미와 복식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색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요소의 하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이 탄생한다. 모든 색은 특정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를 이루어감에 따라 2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관념화된 보편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색채의미는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색채감정은 의식구조상에서 느끼는 색채감정과 종교상에서 의미를 지닌 색채감정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본다. 색의 개념과 의미는 철학적 개념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색의 연상은 많은 사람에게 공통성을 가지며 그것이 전통과 결합되어 일반화되면 하나의 색은 특정한 것을 뜻하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 색의 상징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도 있고 민족의 습관에 따라 다른 것도 적지 않다. 색의 사용범위는 건축물, 의복,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문화와 기후, 풍토에 따라 사용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문화가 융성할 때마다 색은 더욱 화려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해진다. 그 중에서도 직물에 나타난 색은 대개는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직조와 염색을 통해 이루어진 것 이어서 대중의 감정과 미의식, 색의 기호 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색채에 의해 미가 표현되며 스타일을 나타내는 색채는 새로움 즉 감정의 정직

함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척도로 본다라는 말에서도 검증된다 (김효영, 1981).

의복은 이러한 염직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의복에서 색은 단순한 색감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감정과 신복사상이 함축되어 상징화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색은 염료에 의해 염색되어진 직접적인 결과이나 그 색을 염색하던 대중의 색채감정에 미친 정신적인 영향은 중요하다. 염색되었거나 채색된 고대 색의 의미는 색채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색환경을 위한 미의식에 앞서 삶과 죽음과 같은 주술적인 목적이 중요시되었다 (김화중, 1995).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색채 이론이 확립되면서 주술적 관점보다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색채에 대한 의미는 역사, 습관, 미신에 의해 확립되어 왔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관념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나라, 민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의복색 의미에 대한 연구는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의미에 관하여 1990년대 색채 경향을 일본의 색채학자 스나가 다미오가 주장한 에로스 (Eros), 이코노폴리스 (Econo-police), 에스닉 (Ethnic), 에콜로지 (Ecology)의 4E로 분류한 연구 (안향신, 1993), 흑과 백의 무채색 의상과 무채색 선호 심리에 관한 연구 (곽혜선, 1997; 이명숙 등, 1999), 종교복식의 색채 의미 (이주호, 1986)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강운숙 (1993)은 의복의 오행색이 사회적 지위, 연령, 의복착용의 목적을 나타내어 노랑과 적색은 왕과 귀족이 착용하였고 백색은 전통적인 한 민족의 색이라고 하였다. 홍문규 (1982)는 복식의 배색에서 색채조화에 대한 감각을 색채조화론에 의하여 미도 (aesthetic measure)를 계산하고 의식구조상의 색채감정에 관하여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정신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동서양의 색채관을 음양오행과 기독교적 색채관으로 분류하여 염색복에 나타난 동서양인의 의식구조상의 색채감정을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문화권에 의한 색채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맞는 색의 개발에 기여하며 더 나은 배색의 아름다움을 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 II. 전통 복색에 사용한 천연염료

염료의 화학적 합성이 발달하지 못했던 관계도 있으나 전통 염직물에 나타난 색은 모두 자연에서 얻어내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천연 염료의 재료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로부터 얻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관하여 발색되는 주색채 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적색계

적색계의 다색성 염료로는 cochineal, 꼭두서니의 뿌리, 소목의 심재, 자초의 뿌리, 홍화, 주목의 심재, 자단의 수피, 회나무의 열매, 감, 식자나무, 연지, 육엽천 등이 있다. 꼭두서니는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었고 석기시대의 무덤과 많은 고분에서 발견되었다. 그 염색법이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서 보이고 있는데 색이 곱고 견뢰도가 높아 변하지 않는다 (이영, 1982). 소목 색소의 주성분은 brazilein이며 다색성 염료로서 분류상 매염염료에 속한다. 염색 자체로는 견뢰도가 약하므로 오배자와 같은 탄닌계의 염료로써 염색한다. 홍화는 잇꽃이라고도 하며 가장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온 적색계통의 대표적인 염료로써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원산인 국화과의 2년초이며 염색에는 꽃을 이용한다. 홍화에는 황색과 적색의 색소가 있으며 황색소 (safflower yellow,  $C_{24}H_{30}O_{15}$ )는 수용성이지만 홍색소 (carthamin,  $C_{21}H_{22}O_{11}$ )는 알칼리성 수용액으로 추출된다. carthamin은 산성에서 carthamon으로 변하여 색이 나타난다. 소목은 심재를 이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적색, 알칼리와 알루미늄을 이용하면 소목으로 염색되지만 견뢰도가 낮으므로 농색에만 적용하고 시간도 길게 한다. 꼭두서니는 뿌리를 이용한다. 알칼리에 의하여 적색, 알루미늄에 의하여 황미의 적색으로 염색되는데 동백나무 등의 잣물로 선매염하여 염색하는 것이 염색이 잘되고 색상이 좋다. 채취한 뿌리로 즉시 색소를 우려내어 염색하면 황미가 강한 색으로 염색되므로 우선 건조시킨후에 색소를 우려낸다. 또한 염액을 추출할 때 미초를 소량 가하면 적미의 색으로 염색된다. 육엽천은 서양 천이라고도 부르며 뿌리를 이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자적색으로 염색되는데, 알칼리 매염의 담색의 경우에는 소두색을 띤다. 코치닐은 염액을 추출할 때는 초산을 소량 가한다. 주석매염에 의하여 복숭아색으로 부터 약간 청미의 적색,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청미의 적색, 크롬, 철매염에 의하여 청자색으로 염색된다.

### 2. 황색계

황색을 염색하는 염료식물은 대단히 많으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황벽나무의 수피, 회나무의 꽃, 물푸레나무의 피, 검양옷 나무의 수피, 소키나무의 수피, 치자나무의 열매, 조개 풀의 전초, 매자나무의 껍질과 잎, 울금의 뿌리, 참나무 수피, 억새, 괴화의 낙화 혹은 꽃봉오리, 등나무의 녹엽, 뽕나무의 간재 혹은 녹엽, 양파의 껍질 등이 있다. 황벽나무의 색소성분은 berberine으로 약 염기성이며 분류상 염기

성 염료에 속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껍질 중 황색내피 또는 녹엽을 이용한다. 매염처리하지 않고 황색으로 염색되지만 알루미늄으로 매염하는 것이 좋다. 치자의 색소성분은 carotinoide의 일종인 crocin이며 단색성 염료로써 직접염료에 속한다. 치자나무는 염료용, 약용 혹은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염색에는 열매를 이용하며 매염처리를 하지 않고 적색을 띤 황색으로 염색되는데 알루미늄, 주석 등으로 매염처리하는 것이 좋다. 울금은 뿌리에 가용성 색소가 있어 근경을 분말로 만든 것을 이용한다. 산매염에 의하여 황색, 알루미늄 또는 주석 매염에 의하여 적색을 띤 황색, 또는 철과 알칼리를 병용함으로써 황금색, 황금갈색으로 염색된다. 등나무는 녹엽을 이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황색, 구리매염에 의하여 황금색으로 부터 황금갈색, 철매염에 의하여 올리브색으로 염색된다.

위와 같은 황색계 염료는 주로 aluminum 매염제를 사용하여 염색하였으며 대부분이 flavonol 류에 속한다. 이 계통의 색소는 과잉의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 3. 자색계

자색을 염색하는 염료는 고대부터 이용되어 왔다. 자색계의 다색성 식물염료로는 자근, 자초의 뿌리, 오배자, Log wood의 간재, 지치뿌리 등이 있고 蓼藍과 코치닐, 목과 철매염, 소목과 삼남 등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log wood는 주철매염을 거듭하면 적자색 계통의 염색이 되며 질산 알루미늄이나 염화알루미늄의 매염에는 자주색이 된다. Log wood는 남미, 아프리카, 대만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특유의 염색성과 사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출입의 의존도가 매우 활발하다. 오배자는 불나무의 잎 등에 생기는 벌레집을 말하며 철매염에 의하여 보라색을 띤 쥐색, 자흑색으로 염색된다. 자초는 한국, 일본, 중국의 야산에서 자생한다. 동백나무 등의 잣물로 산매염하여 염색하면 아름다운 자색으로 염색된다. 이 염료로 염색한 의복을 배에 두르면 위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약물염색 민속이 있다 (조진숙, 1984).

### 4. 청색계

비단에 녹황색이나 밝은 청색을 물들일 때 쓰는 것은 물푸레 나무였으며 승려복의 색깔이 재회색이나 연한 회색도 이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든 다음 분말을 사용한다. 쪽의 잎, 닭의장 풀의 화즙, 닥나무의 잎, 누장나무의 열매, 맥문동의 잎, 목람, 유구람, 산람, 취목 (누리장) 등이 있다. 쪽 염색법은 생쪽을 며칠 햇빛에 말려서 물을 뿌려 퇴비모양으로 만든 후 몇 달 동안 잘 저장하였다가 약 5-6일간 발효시키는 방법과 생쪽을 물에 하루 또는 며칠간 우려낸 물에 장작불에서 5시간 정도 태운 조개껍질이나 굴 껍질 가루를 첨가하여 색소가 침전되면 여과한 후 30-40°C에서 5-6일간 발효시켜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다. 쪽풀 색소 자체는 물에 불용성이기 때문에 섬유에 염착이 안되므로 이것을 다시 환원시킨 후 피염물을 침지하여 염색하고 공기중의 산소에 산화시켜 Indigo로 되어 염색이 완료된다. 남초의 잎에 함유되어 있는

indican은 건조시키면 indigo로 되고 vatting 함으로써 indoxyl로 되어 염색한 후 공기 산화에 의해 indigo로 된다. 옅은 하늘색으로부터 감색까지 염색할 수 있다. 생잎을 같은 액으로 염색하여 과산화 수소로 산화시키면 물색, 구리 매염에 의하여 청자색으로 염색된다. 취목은 9-10월경 남색으로 익은 열매를 이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물색, 구리 매염에 의하여 청자색, 철매염에 의하여 남취색으로 염색된다.

#### 5. 갈색계

집해당화의 수피 혹은 녹엽, 오리목의 열매와 수피, 다정품나무의 수피, 정향의 꽃봉오리, 수수대와 잎, 상수리나무의 수피 혹은 녹엽, 차, 석류, 감나무 등이 있다. 차는 생잎, 전차, 번차, 홍차를 이용한다. 알카리와 알루미늄을 병용하여 매염하면 옅은 갈색, 철과 알카리를 병용하여 매염하면 갈색으로 염색된다. 홍차는 매염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색으로 염색된다. 석류는 과피를 이용하지만 꽃, 잎, 수피도 이용한다. 꽃이나 잎의 경우에는 건조시키지않고 사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황색, 구리매염에 의하여 황금갈색, 철매염에 의하여 흑갈색, 철과 알칼리를 병용하여 매염하면 진한 갈색으로 염색된다. 정향은 꽃봉오리를 이용한다. 알루미늄 매염에 의하여 옅은 황갈색, 알칼리 매염에 의하여 황갈색, 알칼리와 철을 병용하여 매염하면 갈색내지 흑갈색으로 염색된다. 감나무는 녹엽을 이용한다. 알칼리, 주석, 구리 매염에 의하여 황갈색, 철매염에 의하여 취색으로 염색된다.

#### 6. 흑색계

참나무의 열매, 붉나무의 보방자, 갈매나무의 수피, 가래나무의 열매와 수피, 진달래의 타고 남은 재, 물푸레나무를 태운 숯의 분말, 끼롱나무의 수피와 작은나무가지, 떡갈나무, 층층나무 등이 있다. 떡갈나무는 수피 혹은 녹엽을 이용한다. 철매염에 의하여 흑갈색으로 염색되며 여러번 반복 염색하면 흑색이 된다. 층층나무는 녹엽 및 수피를 이용한다. 구리매염에 의하여 황금갈색, 철매염에 의하여 녹색을 띤 취색 혹은 흑색으로 염색된다. 이러한 많은 자연적 염료는 인간의 생활 깊숙히 침투해 있다. 붉나무에는 오배자 벌레가 기생하여 오배자를 만들므로 오배자나무라고도 한다. 수피 및 녹엽을 염재로 사용한다. 철매염에 의하여 흑갈색 혹은 흑색으로 염색된다.

### III. 동양과 서양의 사상체계

#### 1. 동양의 색채관

동양에서 음양오행 사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권에서 우주인식과 사상체계의 중심이 되어온 원리이다.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이 이러한 오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음양은 태양의 양기이며 이러한 자연의 정기는 사람의 영기를 자극하여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오행은 火水木金土를 의미한다. 적, 흑, 청, 백, 황이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가지 기본 색이었다. 오행에 의한 청, 적, 황, 백, 흑의 순수한 색을 기본 색으로 정하여 정색 혹은 오색이라 하였고, 정색과 혼합한 색을 간색이라고 하였다. 동양의 색채는 표 1과 같이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배색되었다.

표 1. 음양오행의 우주관에 의해 형성된 오행 법칙

오 행	색	계 절	방 위	오 상
목	청	봄	동	인
화	적	여름	남	예
토	황	4계절	중앙	신
금	백	가을	서	의
수	흑	겨울	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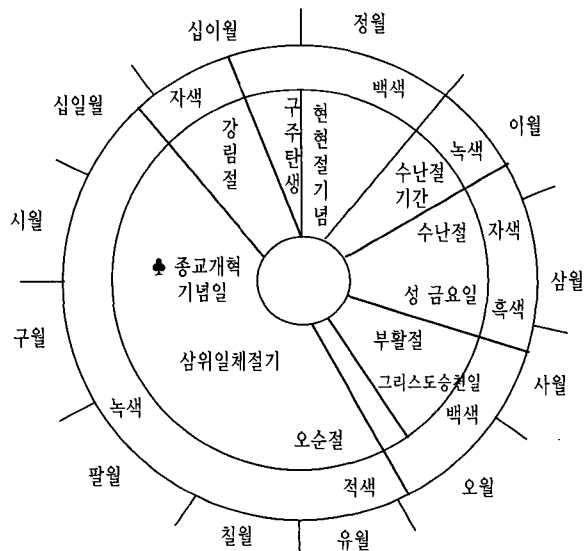
#### 2. 기독교적 색채관

고대 이집트인들은 색채에 관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모든 예술과 문화에까지 침투하였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풍부한 수확을 얻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적이 종교에 있어서 부활의 관념과 결부되었다 (이항성, 1990). 고대 그리스인도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색채를 우주의 질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김화중, 1995). 서양에서는 비잔틴이래 색채에 대한 기독교적인 상징이 성립되어 비잔틴과 중세 서구문화에 침투되었다. 기독교 미술은 거의 2천년에 걸친 각 시대와 국민들의 미술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생활을 지배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독교적인 색채관은 색채에 있어서 기독교적 우의를 성립시켰다. 기독교 색채관의 형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서 내용에 의한 것으로 예수 수난 장면을 묘사한 붉은 색은 순교, 뜨거운 사랑, 피, 주의 수난을 의미한다. 흰색은 승리, 영광과 기쁨을 의미하고, 검정색은 죽음과 재난을 의미한다 (마르코 9장; 요한 묵시록 6장). 두 번째 종교적 색채의

미가 가장 뚜렷한 전례복은 로마인들의 평상복, 예복에서 유래하여 그 시대의 관습이 그대로 도입이 되었다. 고대 로마인들이 입던 흰색, 검정색, 황금색, 자주색 등의 복장 색채는 교회에도 도입되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전례색채의 전조가 되었다. 세 번째 기독교는 교회력에 의해 예배의식을 진행하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교회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독교 성직자들의 전례복은 의식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착용되고 있다. 일반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다. 약속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의 생애, 교회안에서 성령의 생명과 활동을 나타내는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윤환, 1984). 교회력의 색채는 전례복에 적용하여 사용하며 색채와 의미는 표 2와 같다.

표 2. 교회력에 의한 색채와 색채의미



유럽의 기독교 문화의 전통은 종교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일반화되어 색채에서 상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예복에 있어서의 색채사용은 복식에 표현되는 색채의미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어 일반화된 색채감정으로서 오랫동안 서양의 전통에 남아있게 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채색은 화려, 장엄, 사치, 권위의 상징으로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다.

## IV. 동서양의 색채 의미와 복식

고대에서는 염색이 지닌 물리적인 성질이나 개관적인 아름다움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복식은 그시대의 색채문화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 1. 적색의 의미와 복식

고대에 있어서 색은 예술적 의미보다는 종교적, 약물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사용된 것이 적색이었다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1996). 적색은 오행에서 불에 속하고 남방의 정색으로 양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여름을 의미한다. 남쪽은 태양의 빛을 받아 온난한 곳으로 여겨 만물이 무성하여 양생기가 강한 곳이다. 적색에 포함되는 홍색, 주황색 등의 유사한 색을 동일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양기가 강한 적색은 민속신앙에서는 대단히 중요시해 왔다 (하용득, 1996). 귀신으로 대표되는 음을 양으로 물리치고 막는다는 뜻에서 적색이 민속 색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팔, 팔죽, 팔떡을 비롯하여 홍의, 붉은 종이, 오색실, 부적, 연지, 황색종이, 고추, 대추 등으로 병이 났을 때나 사건이 생겼을 때 귀신이 싫어하는 붉은 색으로 무병과 집안의 안녕을 얻고자 하였다. 태양의 적색은 숭고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원시종교 사상을 낳게 되었다.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태양, 불, 열 그리고 생성, 창조와 혈관의 혈액 등에서 볼 수 있는 생의 표시인 동시에 정열과 애정의 적극성과 공격적 흥분을 나타낸다.

#### 1) 왕, 왕비복

최상위의 복색으로 사용되어 일반서민은 착용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임금이 병환으로 위급하면 붉은 비단에 도끼를 그려 넣은 병풍을 설치하였다.

#### 2) 기녀복, 무녀복:

무당이 붉은 옷을 입고 악귀를 쫓아냈다.

#### 3) 혼례복

혼례복의 기본색은 청홍색이다. 혼례에는 노랑바탕에 자주삼회장을 단 저고리를 입고 겹은 홍치마, 안은 남치마를 입었다. 홍치마는 자손과 가운데 불과 같이 왕성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오행의 상색효과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한다.

#### 4) 활옷

활옷은 홍장삼이라고도 불렀으며 조선왕조에서는 공주나 응주의 대례복이었던 것이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생에 한 번인 혼례때 서민에게도 허용되었다. 동양철학에서 남녀를 남색, 홍색으로 색채를 정한 것에 근본을 두고 다홍색 비단에 연화, 모란 십장생 등을 수놓은 활옷에는 남색으로 안을 바쳐서 만든다. 길상문양으로는 二女之合百福之源의 뜻을 나타낸 문자문이 있다. 혼례때 붉은색 활옷을 입고 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은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속신앙의 원천인 음양오행에 기초한 주술적



인 표현이다. 사주단자는 청색과 홍색을, 아들을 낳으면 금줄에 빨간 고추를 매달거나 하는 것도 모두 전통적인 색채의식에서 연유된다 (하용득, 1996).

#### 5) 붉은색 속옷

어린이, 노인등 병약한 자는 홍색 속옷을 착용하면 병마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임동권, 1971).

#### 6) 카톨릭 사제복

유럽에서는 적색이 정열을 상징하였고 카톨릭 사제의 복색중 적색은 순교자를 뜻할 때 입는다.

#### 7) 중세유럽, 르네상스 시대 신부복

붉은 색은 귀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중세부터 충성과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색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결혼의상에 사용되었고 악마를 쫓아 낸다고 믿어 붉은색 베일을 썼다. 붉은색 베일은 점차 붉은색 옷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습관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중세 유럽의 신부들은 붉은색 신부복을 즐겨 입었다. 면사포의 색도 적색이었다. 신부머리에 베일을 쓰는 관습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신부들은 결혼식을 올릴 때 특별한 옷을 만들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으며 다만 악마를 쫓아 낸다고 믿었던 붉은색 베일을 머리에 써서 특별한 날임을 표시하였다. 또 베일 위에는 화관을 썼으며 식이 끝난 후 베일을 벗어 축하객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었다. 로마의 신부들은 전통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풍스럽게 장식한 머리에는 선명한 오렌지 베일을 썼다. 고대인들은 악령이 새로운 생활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코지를 하며 그 표적은 주로 신부라고 믿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쓰는 베일은 배회하는 나쁜 귀신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변장하기 위함이었다. 상당수의 문화권에서는 흰색은 불행한 슬픔의 상징이었다. 그런 나라에서는 신부들이 대개 붉은색을 사용한다 (채금석, 1997).

#### 8) 아메리카 독립전쟁 중의 신부복

아메리카에서는 독립전쟁 당시 붉은색 신부복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붉은색은 영국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였다. 동양권, 서양권에서 신부복에 적색이 사용되는 경우 적색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었고/아메리카 독립전쟁 중에는 시대적인 사건에 따라 영국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신부복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2. 백색의 의미와 복식

백색은 해가 지는 곳으로 음을 상징하고 음양오행에서는 금에 속하며 서쪽과 가을에 해당한다.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흰색을 신성하게 여겼다. 또한 순결, 청렴 등을 상징하며 한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대표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구미래, 1992). 한민족의 백의 습속화는 태양 숭배사상, 순결, 청렴등의 상징과 자연색의 선호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백의가 서민에게 고정화된 것은 서민에 대한 경제적 궁핍, 국가적 통제, 염료부족 등으로 자연스럽게 착용되었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황색을 비롯하여 자색, 회색, 옥색 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금제복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백의를 입는 것이 편하였고 이것이 관습화 되었는데 물론 이에 대한 금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민족이 백의를 입는 관습은 흰색을 좋아하여 백의를 숭상하여 온 것과 또는 국상이 잦은 가운데 백의를 입게된데 생긴 것 등 여러 가지 점이 있기는 하나 첫째는 염료를 구하기 힘든데다 값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둘째로는 복색에 대한 까다로운 금제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례복, 관복 등 특수한 것 외에는 색의를 입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이 때문에 염직의 기술이 크게 발달할 수 없었고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백영자, 1993). 한국인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나 해원의 그림만 보더라도 잘 조화된 산뜻한 색채감정은 매우 예민하며 색에 둔감하거나 유채색을 기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백색에 대한 애착은 한민족에게 인공의 배제요 자연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백색은 평상복으로 많이 입었지만 궁중이나 귀족사회에서는 겹옷으로 잘 사용되지 않았고 겹옷의 배색이나 속옷정도로 선택되었던 색이다. 백색은 청결, 신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길색이 아니어서 신분이 낮은 표시이거나 흉례에 사용된 의복색이다. 이조의 태종 실록에는 태종 원년에 백의 착용에 관한 금지령을 내렸고, 세종7년 11월에는 정부에서 일하는 자는 백색 옷을 입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연산군 11년에는 도성 여자들이 백색치마를 입는 것을 금했고 숙종2, 17년, 현종과 영종때도 백색 옷을 입는 것을 금했다. 인간의 욕구에는 유색 옷 즉 염색을 한 옷을 입기를 바라지만 백의를 입게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 때에는 준비등위를 밝히기 위해 관리는 유색의 옷으로, 서민은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게 했고, 사대주의 사상과 천자 색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신하는 현색, 황색, 자색의 사용을 금하였다. 그리고 이조의 부국책은 근검절약에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 더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덜 쓰면서 견디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복식 염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때때로 절약령 내지는 금지령을 내렸다 (하용득, 1996). 현종, 숙종때에는 흰옷을 금함과 동시에 청색옷 착용을 명하였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최상수, 1990). 신구약성서에서 백은 순결, 영광, 위엄과 승리를 (다니엘서 7장, 요한 계시록 20장) 나타낸다.

#### 1) 신부복

신부복은 나라와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다. 흰색은 순처녀와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처녀성을 상실하기 직전의 신부들이 흰색 옷을 입었다. 여성이 흰옷을 입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생산의 메시지와 연약한 어린 신부의 순결미를 자아낸다. 웨딩 드레스가 흰색으로 정착된 것은 1920년대 들어서이고 그전까지는 신부가 좋아하는 색깔의 드레스나 가운을 입었다. 서양에서는 신부가 흰색의 신부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 부터이며 이때의 흰색은 순결이 아니라 환희를 의미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의 신부들도 흰색 옷을 입었는데 악마를 쫓아 낸다고 믿어 붉은색 베일을 썼던 것이 그리스 시대와 다른 점이다. 중세 유럽의 신부들이 붉은색 신부복을 즐겨 입었는데 비해 기독교인들만이 흰색예복을 입었다. 이때부터 흰색예복에는 순종, 순결의 뜻이 담기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기

독교인들의 결혼예복이었던 흰색 웨딩드레스가 결혼예복의 상징으로 일반화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이다. 흰색 약혼예복은 결혼까지의 과정을 아무 거부없이 따르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세이후 19세기에 이르는 근세 유럽의 부유한 계층에서 부의 과시로 흰색의 신부복을 입었다. 즉 쉽게 더러워져도 다시 옷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월감의 표시였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엄숙한 종교적인 형식보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의 결혼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때부터 오늘날과 같은 신부만의 베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베일을 머리에 쓴 다음 얼굴정면과 머리 뒤로 늘어 뜨렸다. 색상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레이스가 달려 있었다. 영국신부들은 베일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빌린 베일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던 데서 오는 풍속이었다. 동양권에서 일본의 신부는 흰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결혼과 동시에 신부는 친정부모에게는 죽은 자식이나 다름이 없음을 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세기 말엽부터 조금씩 서양풍의 결혼예식이 도입되어 전통 혼례복 대신 흰 한복에 베일을 늘어뜨리는 동서 혼합형 신부복이 유행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전후로 서양식 웨딩 드레스와 거의 흡사한 신부복이 보편화 되었다.

표 3. 동서양의 시대, 국가에 따른 신부복색 의미 변화

시대·국가	신부복색	의미
고대그리스	백색	순결, 환희
로마	백색·붉은색 베일	순결, 환희, 악귀예방
중세유럽·르네상스 (기독교인)	붉은색 (흰색)	악귀예방 순종, 순결
근세유럽	흰색	부의 과시
아메리카 (독립전쟁당시)	붉은색	영국에 대한 반란
스페인 (농촌)	검은색	악귀의 예방
노르웨이	녹색	성장
조선	활옷: 붉은색 저고리 : 노랑바탕에 자주색 삼회장 치마 : 곁- 홍치마 안- 남치마	붉은색 : 악귀예방 노랑: 흙을 상징하고 만물을 생성한다. 홍치마 : 자손과 가운이 불과 같이 왕성
	백색 치마, 저고리 백색베일	서양풍속
일본	백색	친정부모에게 시집가는 딸은 죽은 자식

## 2) 상례복

### 상복

상복은 슬픈 마음과 속죄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하여 입는다. 상주가 염색한 옷을 입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모든 인위적인 것은 배제되고 자연적인 것이 사용되었고 주로 백색과 흑색이 사용되었다. 황색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김지희, 1997). 부녀자는 흰옷에 관은 흰 족두리와 흰 멩기를 드리우고 나무비녀를 꽂았다 (백영자, 1993). 남자는 표백,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소색인 소복, 소혜 (신발), 오사모, 흑각대 등이 사용되어 화려한 장식을 금하였다. 사자와 친분이 깊을수록 거친 천과 바느질이 험하고 투박한 옷을 입는다.

### 역복

죽은 사람의 처, 자녀, 자부는 머리를 풀고 아들은 맨발로 흰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되 소매를 걷어 왼쪽 어깨를 드러낸다. 유복자들은 금이나 은으로 된 패물을 몸에 지니지 않고 화려한 의복을 벗는다.

### 여왕의 상복

중세유럽에서 여왕의 상복은 흰색이었는데 흰색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초라하고 쓸쓸하게 보여 활기없는 느낌을 준다.

## 3) 돌이전 아기복

아기가 돌이 되기전까지는 유채색을 입히지 않고 백색을 입히는 것들이 모두 전통적으로 내려온 색채의식에서 연유된다 (하용득, 1996).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새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돌날까지는 흰옷이었다. 백 날 안에는 순백으로만 입히는 이유는 청정과 신성, 장수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궁중에서는 백일이 안된 왕자는 흰색 옷을 많이 입히는데 백발장수를 비는 의미였다 (박인경, 1984).

## 4) 토가 (Toga)

로마인들은 복식의 색채로 계급과 지위를 나타냈고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였다. 기쁜 날에는 흰색의 토가를 착용하였다 (안향신, 1993).

## 5) 천사 이미지의 복식과 미덕, 애타주의 이미지 복식

흰색은 천국과 천사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천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그린 고전적인 미술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 백설처럼 새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은 힘든 노동이나 허드렛일로 자신의 옷을 망가뜨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한가롭고 느긋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매일 같이 흰옷을 입는 사치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세탁기와 드라이클리닝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흰색이 높은 지위의 상징이었다. 사람을 시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흰옷을 입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흰색은 미덕과 애타주의의 색깔이다.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과학자, 병든 이를 보살피는 의사나 간호사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바로 흰색이다. 흰색은 전혀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허준, 1996). 흰색은 어떤 성격, 체격에든지 맞을 수 있는 복색이며 명량한 성

격을 더욱 향상 시키고 정열과 극렬한 성격을 완화시키며 음울한 성격을 명쾌하게 이끌어 준다.

### 3. 쪽색의 의미와 복식

청색은 오행으로 따지면 木에 해당하고 동방을 뜻하며 계절로는 만물이 생성하는 봄에 해당한다. 또한 동양적 색조관으로 보면 5색 (청, 황, 적, 백, 흑)의 첫 번째 색이다. 서민층의 민간신앙에서 영원하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사상은 하늘빛을 닮은 쪽빛을 가장 애지중지 많이 사용하게 했고 대단히 중요시 해 왔다 (김영숙, 1985; 하용득, 1996; 김지희, 1997). 양기가 강한 적색과 더불어 청색도 민속신앙에서는 청색은 봄이란 계절에 적합한 희망, 생명의 표현으로 온난하고 만물이 무성하는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인식되어 주술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 왔다. 성황당을 지날 때는 돌이나 소나무 가지를 놓아야 길하다. 출산시에 문전에 송죽의 청기를 달아 맨다. 사주포는 청홍색으로 한다 (김영규, 1980). 바그너의 색채연구소에 의하면 파란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두뇌는 11가지 진정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한다 (김화중, 1995). 서아프리카 가나의 아딘크라 (Adinkra) 직물에 나타난 색채에서 녹색은 새로움, 비옥함, 활력, 및 성장에 있어서 전성기 등을 상징하였고, 인디고 블루의 경우는 사랑, 여성특유의 부드러움과 관련되며 이른 새벽과 초생달을 의미하였다 (안향신, 1993).

#### 1) 평상복

조선시대 평상복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는 궁중복에서 반가의 평상복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복색이다. 젊을때는 대개 자주나 홍치마를 입었지만 나이가 들면 남치마를 걸치마로 입었고 또 혼자된 왕비나 대왕대비도 남치마를 입었다. 청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우리 나라 동방의 상징으로 청색착용이 권장되어 일반인 누구나 마음놓고 착용할 수 있는 길복색으로 선호되어 왔다. 또한 미신, 공포, 비탄, 파멸을 딛고 일어서서 초세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불멸의 상징을 나타낸다 (이상은, 1992).

#### 2) 관복

아청은 검은빛을 띤 푸른색으로 조선시대 조신들의 관복색깔로 규정되어 단령, 이엄, 감투 등에 사용되었다.

#### 3) 중세 종교화의 성모마리아

청색 옷에 적색 mantel을 입고 있다. 서기 431년경 당시의 화가들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군청색으로 묘사하였다. 감청색 혹은 군청색은 신념과 선의를 암시하는 믿음직스러운 색으로 신중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신의 신성과 사랑이라는 상징을 의미한다.

#### 4) 영국의 이튼 칼리지의 색:

청색, 녹색은 신성, 정신적인 고귀함, 영원한 청춘, 겸양을 상징하고 있다. 남색은 preppie (prep school의 학생이나 졸업생이 고급 옷을 소탈하고 편안하게 마구 입는 것이 특징) 문화를 대변하는 색이다.

5) 신부복

노르웨이 사람들은 녹색 신부복을 즐겼다. 퀴리 부인으로 유명한 마리큐리는 결혼때 진한 남빛 드레스를 입었다.

6) 기타복

녹색은 성장을 상징하여 일요일에는 녹색 옷을 입는다. 무늬가 없는 파란색은 남색과 마찬가지로 가장 전통을 강조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은행가나 법률가들이 즐겨 입는 옷의 색이다. 미국 해군은 1915년 짙은 파란색을 제복의 공식 색으로 지정하였다. 19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짙은 파란색은 공화당과 보수주의의 분위기와 결합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청색이 동양권의 조선에서는 동방의 상징으로 길복색으로 사용되었고, 중세 기독교권에서는 신성과 사랑을 의미하였으며, 성장의 의미로 일요일에 녹색옷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다.

4. 황색의 의미와 복식

황색은 오행에서 토에 속하고 오색의 중심 색이다. 방향은 중앙에 속하며 계절은 4 계절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 중앙위치의 토인을 가리키고 생출의 덕을 나타내며 존귀한 색의 상징으로 광명과 생기를 주는 양기이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노랑색은 불교와 힌두교도에게 신성한 색으로 남아 있다 (이정옥 등, 1997). 황색을 두고 상반된 두 개의 이미지를 지녀왔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이 황색의 상반된 논리에 대해 문화인류학자 기드키쉬는 황색은 태양의 빛깔이기 때문에 본래는 긍정적이었으나 모든 빛깔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띠는 실용적인 색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식별 격리시켜야 할 이단자, 이교도, 창녀, 죄인의 표지로 이 빛깔을 자주 선택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하용득, 1996). 흰색가운데 하나인 노랑색은 사람의 두뇌 중에서 근심걱정과 관련된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두뇌에 등록된 색의 spectrum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색이기도 하다. 노랑색은 부신을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맥박이 빨라지게 한다.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어 근심걱정을 유발한다. 또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은 나치독일에서 유대인들에게나 스페인의 이단심문때 심문받는이에게 노랑색 완장을 착용하게 한 데서 유래된 것일 수 있다 (허준 등, 1996). 또 노랑색은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 반면에 노랑은 낙관적이고 마음을 안심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화재현장을 비롯한 각종 긴급사태때 구조대원들이 입고 있는 비옷 같은 것은 노랑색이다. 또한 노랑은 태양의 색이고 하루 한가운데 최초의 빛이다. 공자가 노랑색을 좋아했다는데서 이색을 지혜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많다. 금색의상은 호화로움과 권세를 의미한다. 재정적인 연상효과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허식과 과시를 암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피부에 찬란한 윤기를 더해줌으로써 윤택한 인상을 자아내게 한다.

1) 곤룡포

중국. 인도에서는 황색이 신성, 고귀, 권세, 호화로움, 지혜 등을 의미하는 색이며 중국에서는 오색의 중심인 가장 고귀한 색으로 최고 통치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자 색으로 증원의 천자인 중국의 임금인 황색(중양의 색이라는 상징) 곤룡포를 입을 수 있었지만 대한제국의 고종황제 이전까지의 우리 나라 임금들은 자황색까지는 입을 수 있었고 황색 단독 색은 공예품이나 여인의 복식에는 입을 수 있었다(김지희, 1997).

#### 2) 혼례복

혼례에는 노랑바탕에 자주삼회장을 단 저고리를 입고 겹은 홍치마 안은 남치마를 입었다. 노랑 저고리는 흠을 상징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뜻이다.

#### 3) 상복 및 사형 집행인복

이집트, 스페인에서는 황색이 죽음을 의미하여 상복에 사용되었고, 스페인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의복색으로 사용되었다.

#### 4) 유다의 의복

기독교에서는 노랑색이 배반자 유다의 의복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보급이래 최하위의 색으로 인식되어 노랑색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塚田 敗, 1985).

황색의 경우 중국에서는 오색의 중심인 가장 고귀한 색으로 최고 통치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자 색으로 사용되었고 불교, 힌두교권에서는 신성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권에서는 죽음, 배반을 의미하는 최하위의 색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5. 흑색의 의미와 복식

오행중 수에 속하고 방위는 북쪽을 가리키고 계절로는 겨울에 속하며 어두운 곳인 음을 상징하였다. 흑색이 다른 색과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상징한다. 1500년대 스페인 지도자들은 모조리 검은색옷만 입었다. 1672년 모테스판 부인이 검정을 유행시킨 이래 과부의 상복은 검정색이 되었다. 검은색은 순례자의 의상이나 수녀복 등에서 벗볼 수 있는 것처럼 극도로 점잖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다. 종교에 종사하거나 권자에 앉은 사람들 즉 성직자, 수녀, 경찰관 등은 전통적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지배를 암시하는 속성 때문에 권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애도의 뜻을 표할 때 검은옷을 입는 풍습은 16C 브리타뉴의 앤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침울한 의상은 비극적이고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정은 애도의 색으로 남아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남편을 여원 여인들이 검은옷만 입고 여생을 살아가기도 한다(김유경, 1994). 흑은 악을 상징하여 진혼을 할 때는 흑색 옷을 입는다(이규태, 1991).

#### 1) 무복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하여 복을 기원하고 액을 물리치는 신복사상과 결합된 형태이다. 다양한 의미에서 착용하며 무녀는 굿을 할 때 자신의 신분에 따른 의복이 아니라 각곳을 상징하는 신의 등위, 성격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였고 장식성도 내포되었다. 무당이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내려고 영매의 역할을 할때 검은 무복은 죽음, 죄악,

귀신 등을 상징한다.

2) 염의

사례편람에 보면 염의 색은 현색이고 상의와 하상이 한데 붙었으며 옷감으로는 綾 綺 類로 하고 안은 흰색 얇은 비단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勳 緣 (분홍빛선)을 두르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염의 바탕색인 현색은 청색으로 남성을 상징하고 하늘의 양색인 반면 분홍색은 간색으로 여성을 상징하는 땅의 음색이기 때문에 혼례복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면사포

면사포는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쓰는 보자기 모양의 紗로서 공주, 왕비의 혼례때 썼으며 민가에서는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집에 갈 때 검은색 사로 만든 면사포를 썼다. 궁중에서 쓴 화려한 색상의 면사포는 과시의 성격이 강하고 민가의 검은색 면사포는 악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가 강하였다. 오늘날에는 웨딩드레스와 색채를 맞춘 면사포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4) 스페인 농촌의 신부복

스페인의 농촌에서는 흔히 검은색 옷을 결혼의상으로 입었다.

5) 서양기독교권의 상복

흑색은 권위, 세련, 위엄, 슬픔, 후회를 나타내며 기독교에서 상복으로 지배적인 색이 되었다.

표. 4 흑색 복식 의미의 변화

시대·국가	복식	의미
조선	서민용 면사포 무복	악귀의 시선차단 영매역할
르네상스 이전 기독교권	상복	죽음
스페인 (농촌)	신부복	악귀예방
르네상스 시대	국왕, 귀족복	엄격·지배
바로크 시대	시민복	간소함

동양권에서는 흑색이 악을 상징하여 액을 물리치기위해 서민층의 면사포,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영매역할을 하기위한 무복에 사용되었고 기독교권에서는 상복의 색이었고, 지배를 암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권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싶은 층에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6. 자주색 의미와 복식

보라색은 화려한 표정을 갖는 색으로 고대부터 동서양에서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



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든 사람에게 귀하고 품위 있는 느낌을 준다. 연한 자주색과 보라색은 꿈과 영혼을 상징하는 색이다. 고대로마 시대에서는 수많은 연체동물들을 갈아서 귀하게 자주색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보라색의 어원은 조개를 의미하는 purpura에서 유래되었다. 이색은 왕권을 의미하고 충성의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한 충성은 자주색을 대단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의 색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채금석, 1997). 동양권에서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자색이 고귀한 색으로 가장 높은 자리의 표시로 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자색이 가장 우위의 색으로 왕복으로 부터 시작하여 군인과 승려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입은 귀한 대우를 받은 색이다 (김지희, 1997). 자색이 고귀한 색, 태평성대의 상징, 형이상학적 세계의 사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대사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서 박혁거세의 탄생신화나 신라 탈해왕의 김알지 신화에서 '자주빛 구름이 하늘에서 숲속으로 드리워져 있고 그 구름 속에서 황금으로된 궤에 한 사내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 예로부터 자주색의 신비성을 알 수 있다 (하용득, 1996). 서양권에서 구약시대에는 왕권과 부를 표상하였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유대인의 역사를 훑어보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라비들은 한결같이 자주색 장삼을 두르고 있다. 물론 로마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주색 벨벳 옷을 입으면 왕권과 부유함을 암시할 수 있다. 자주색은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을 발산할 수 있다. 귀족사회에서 색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데 고상함, 아름다움, 우아함을 말한다. 모든 색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자색이다.

#### 7. 갈색의 의미와 복식의 의미

권력을 강요하지 않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색이다. 대지나 흙을 연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색이다. 중세의 농민들은 갈색옷을 주로 입었는데 이는 대단히 겸손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대공황이 몰아 닥쳤을 때는 옷을 자주 빨아 입지 못하거나 얼룩이 묻은 것을 감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갈색 옷을 즐겨 입었다.

### III. 결론

문화권에 따른 색채의미를 이해하고 감정에 맞는 색과 배색 개발을 위해 동서양의 색채관을 음양오행과 기독교적 색채관으로 분류하여 염색복에 나타난 동서양인의 의식구조상의 색채의미를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적색이 신부복에 사용된 경우는 동서양이 모두 악귀예방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독립 전쟁 중에 아메리카에서는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 사용되었다.
2. 백색의 경우 신부복 색에서 동양권의 일본에서는 친정부모에게 시집가는 딸은 죽은 자식의 의미로 백색의 신부복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상복의 색이었으나 개화기에는 서양의 영향으로 신부복색이 되었다. 서양권의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기독교인은 순결 환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청색의 경우 동양권의 조선에서는 동방을 상징하며 길복색으로 사용되었고, 중세기독교권에서는 신성과 사랑을 의미하였으며, 성장의 의미로 일요일에 녹색옷을 입었다.
4. 황색의 경우 동양권의 중국에서는 오색의 중심인 가장 고귀한 색으로 최고 통치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자 색이었고, 불교, 힌두교권에서는 신성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권에서는 죽음, 배반을 의미하는 최하위의 색이었다.
5. 흑색의 경우 동양권의 조선에서는 악을 상징하여 액을 물리치기위해 서민층의 면사포,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영매역할을 하기위한 무복에 사용되었다. 기독교권에서는 상복의 색이었고, 지배를 암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권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싶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 참고문헌

- 김화중 역 (1995)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pp. 20-21, p.27
-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삼신각, pp.59-61, p.148
- 김지희 (1997) 우리의 색재현을위한 전통염색: 전통염색공예.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94, 105, 119
- 김영숙 (1997) 전통복식을 통해본 색채의식: 전통공예염색.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재재단, pp.122-140
- 김영숙 (1985)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상고, 고려편). 서울, 동양복식연구원, P.225
- 김열규 (1980) "한국의 신화". 일조각, p.32
- 김효영 (1981) "예술과 영혼". 열화당
- 구미래 (1992) "한국의 상징세계". 교문사, p.52
-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1964) "한국 민속대관".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출판부, p.336
- 강운숙 (1993)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pp.7-9
- 광혜선 (1997) 흑색 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남성우 (1998) 천연염료에 의한 염색. 섬유기술과 산업, 2(2) pp.238-257
- 박인경 (1984) 한민족의 백의 풍속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p.16
- 백영자 (1996) "한국의 복식". 경춘사 p.337, 424
- 신구약성서, 사서기 8장, 다니엘서 7장, 요한 계시록 20장, 마르코 9장, 요한 묵시록 6장
- 이주호 (1986)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숙, 오연옥 (1999) 한국인의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무채색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족조형학회 제2호
- 이항성 (1990) "서양미술사". 문화교육출판사, p.10
- 이정옥, 조차, 이연순, 권미정 (1997)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p.146
- 이규태 (1991) "재미있는 우리옷 이야기". 서울 기린원, p.137
- 이영 (1982) 전통 천연염료에 관한 실험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 이상은 (1992) "조선왕조복식사론". 동방도서, p.397
- 안향신 (1993)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색채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14,
- 조진숙 (1984)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 연구: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환 (1984) “미사해설”. 카톨릭 출판사, p. 51
- 최상수 (1990) “한국민속학 총서 10: 한국의 의식주와 민구의 연구”. 성문각
- 채금석 (1997) 패션세계 입문. 경춘사, p.10
- 홍문규 (1982) 염직물에 나타난 한국인의 색채감정 및 색채조화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하용득 (1996) “한국전통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pp.42-43, p.146, 181, 184
- 행운의 풍속 pp.26-27, 182-184 , p.206
- 허준, 안종설 역 (1996) “패션속으로”. 새로운 사람들, p.64, 66
- 塚田 敗 (1985) “色彩の美學”. 紀伊國屋書店, p.135

Abstract

Color Meaning of the East and the West on Dyed Clothing  
Traditionally

Shin, Jung-Sook\* · Lee, Sang- Eun\*\* · Chung, Hye- Jung\*\*\*

\*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Lecturer  
\*\*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Dept. of Fashion Design,  
Seokyeo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lor according to the culture 2) to develop color and color arrangements in the thoughts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meaning of color on the dyed clothing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book written classified with yin, yang, five color elements and Christian color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Red wedding dress used the meaning of prevent badness and American used to resist for England in the War of Independence. 2. White wedding dress meant innocent, gladness to the ancient Greece, Rome and Gothic Christian in the West, and it meant a dead daughter in Japan, East, 3. Blue clothes meant lucky in the East and meant sacredness and love in the West. 4. Yellow was the color of the Emperor in the East, and it meant death, betray in the West. 5. Black meant badness in the East, and it meant sadness in the West.